

**시각장애인을 위한  
큰 글씨 자료**

# **탄생 100주년 기념: 박래현, 삼중통역자**

본 자료는 시각장애인의 작품 감상을 돕기 위한  
큰 글씨 자료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음성 해설과  
함께 이용하시면 더욱 알차게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 음성해설 이용 안내 ●

- 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검색 후 다운로드(무료)
- 2 오디오가이드 이용(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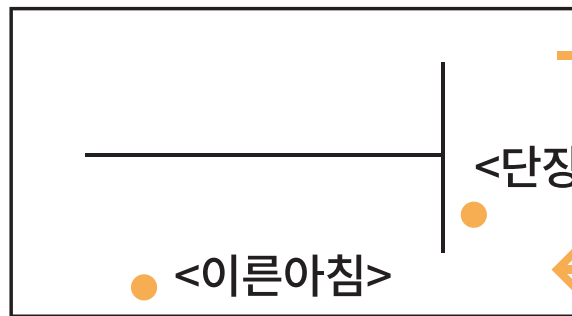
## ● 전시 소개 ● ■

《탄생 100주년 기념: 박래현, 삼중통역자》전은 20세기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박래현을 재조명하는 회고전입니다. 전시명인 ‘삼중통역자’는 박래현이 스스로를 지칭한 단어입니다. 그녀의 남편이자 화가 운보 김기창은 청각장애인 이었습니다. 박래현은 남편과 함께 미국 여행을 할 때 가이드의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고 다시 구화와 몸짓으로 남편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러한 자신을 ‘삼중통역자와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래현이 말한 ‘삼중통역자’는 영어, 한국어, 구화를 넘나드는 언어 통역을 의미하지만, 이번 전시에서의 ‘삼중통역’은 회화, 태피스트리, 판화라는 세 가지 매체를 넘나들었던 그의 예술 세계로 의미를 확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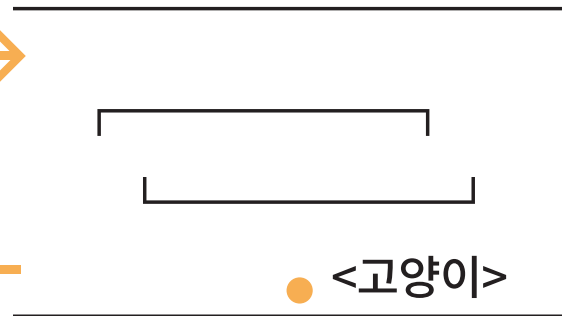
## ● 전시 구성 ●

1부 한국화의 '현대', 2부 여성과 '생활', 3부 세계여행과 '추상',  
4부 판화와 '기술'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전시실 -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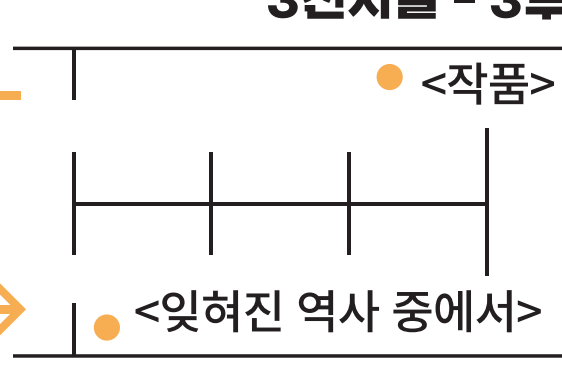
**2전시실 - 2부**



**4전시실 - 4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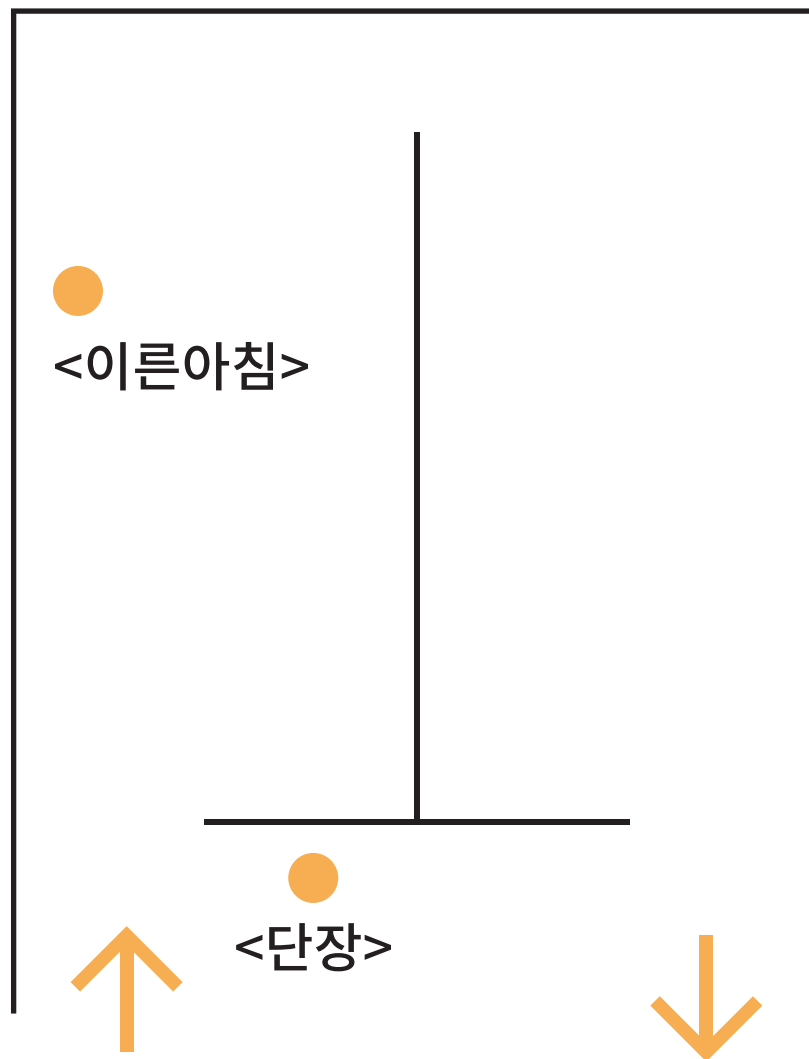
**3전시실 - 3부**



## ●관람을 위한 전시실 안내도●■

### 1부 한국화의 ‘현대’

2층 현관 왼쪽에 1전시실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연결된  
왼쪽 벽면의 작품부터 시작해,  
직사각형의 공간을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작품을 감상하고 출구로  
나오면 중앙 현관입니다.



## ● 작품보기 ●

### 작품명: <단장>



<단장>은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 붉은 색의 화장대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 소녀의 모습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은 자세는 화가로서의 출발을 준비하던 박래현의 결의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 ● 작품보기 ●

### 작품명: <이른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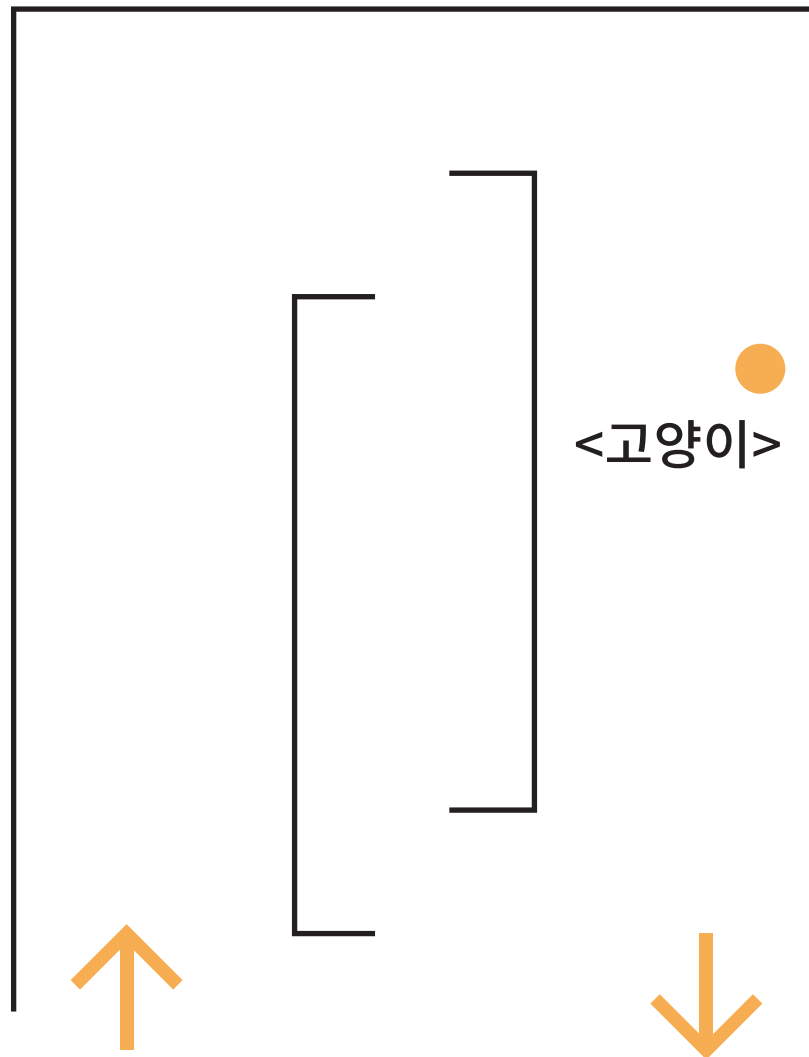


<이른 아침>에는 머리에 뭘가를 얹은 네 명의 여인들이 한복 차림을 하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가는 여인들의 모습은 네 아이를 키우며 그림을 그렸던 박래현의 일상과 닮아 있습니다. 박래현은 형태를 단순하게 표현하고 색상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1950년대 여성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 ●관람을 위한 전시실 안내도●■

### 2부 여성과 ‘생활’

2전시실은 2층 현관 오른쪽에  
있습니다. 1전시실 출구에서 나와  
중앙 현관을 가로질러 그대로  
직진하면 2전시실 입구가 있습니다.





## ● 작품보기 ●

### 작품명: <고양이>



<고양이>에는 몇 마리의 고양이가 등장할까요? 밤의 풍경처럼 어둠 속에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이 뒤섞여 있어 몇 마리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박래현은 이 작품을 그릴 당시에 동양화를 가지고 어떻게 추상화를 그릴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 ●관람을 위한 전시실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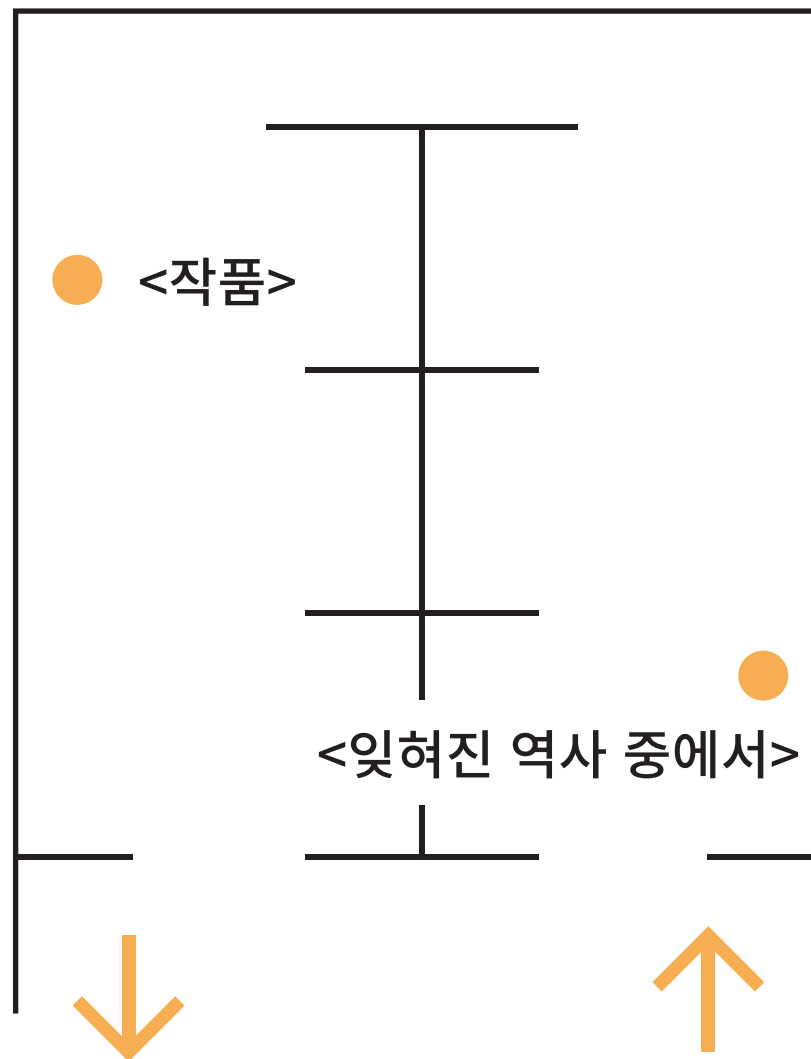
### 3부 세계여행과 ‘추상’

2층 중앙 현관의 오른쪽

실내 계단으로 올라가면

3층 중앙 공간이 있습니다.

3전시실은 3층 중앙 공간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 ● 작품보기 ●

### 작품명: <잊혀진 역사 중에서>



<잊혀진 역사 중에서>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래현은 이러한 추상화 작품에 대하여 ‘역사 이야기에서 색과 이미지를 찾아 환상적으로 표현한 추상 회화’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가장 대비되는 노란색과 검은색을 이용하여 물감이 서로 겹치고 번지고 뒤섞이면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 작품보기 ●

### 작품명: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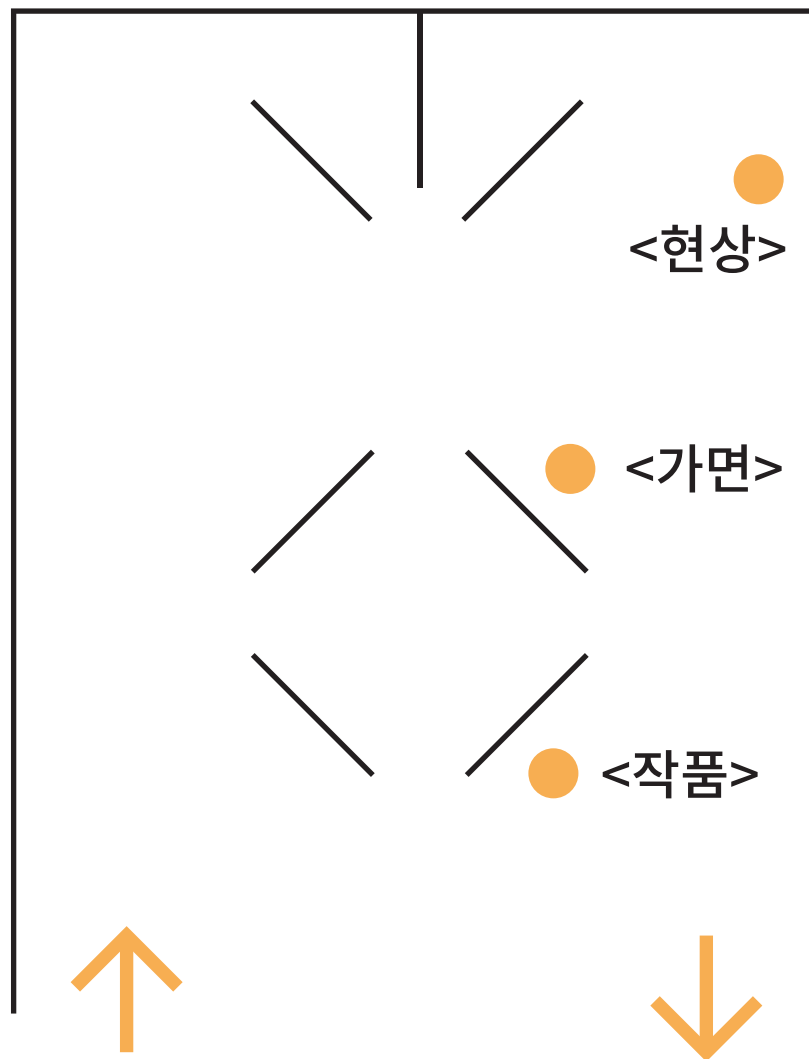
작품의 제목이 <작품>입니다.

구불거리는 황토색의 띠로 가득 채워진 추상화입니다. 좌측 상단에 황토색 띠가 길쭉한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사람의 얼굴이나 가면처럼 보입니다. 구불거리는 황토빛 띠는 토속적인 느낌을 풍기고, 빨간색과 검은색은 주술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 ●관람을 위한 전시실 안내도●■

### 4부 판화와 ‘기술’

4전시실은 3층 중앙 공간의  
왼쪽에 있습니다. 3전시실  
출구로 나와 중앙 공간을  
가로질러 가면 4전시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 작품보기 ●

### 작품명: <현상>



우리가 즐겨 먹는 도넛이 떠오르는 작품입니다. <현상>은 원형과 사각형, 그리고 소라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래현은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동판화 기법에 몰두했는데, 하나의 작품에 여러 가지 동판화 기법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 ● 작품보기 ●

### 작품명: <가면>



<가면>은 투박한 질감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콜라그래피’라는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기법은 종이판 위에  
직물, 실 등의 여러 가지 물건을 올리고  
잉크를 묻힌 뒤에 찍어내는 것으로,  
다양한 사물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 작품보기 ●

### 작품명: <작품>



가운데에 반짝이는 물체는 무엇일까요?  
<작품>에 다가갈수록 반짝임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궁금해했던 물체는 바로 하수구 마개입니다. 이 작품은 태피스트리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박래현은 판화와 더불어 이 기법에도 관심이 많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 **탄생 100주년 기념: 박래현, 삼중통역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2020년 9월 29일~2021년 1월 3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2021년 1월 26일~5월 9일**

본 교육자료에 수록된 글과 도판의 저작권은 저자,  
이미지 저작권자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습니다.  
© 2020 국립현대미술관